

포트리 학군 아시안 영어 성적 급상승

뉴저지주 표준시험 합격률 공개

10학년 90.2%로 전년 대비 17%P 올라
 팰팍 7학년은 1년 새 14.5%P나 떨어져

올 봄 치러진 뉴저지주 표준시험(PARCC) 합격률이 공개됐다. 주 교육국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포트 리·리지필드 학군 등에서 아시안 학생들의 합격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이 눈에 띄며 한인 밀집 학군 별로 성적 차이도 뚜렷했다.

표준시험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 3~1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시험은 영어와 수학 과목으로 구성되며 1단계 '기준 미달(Not Yet Meeting)'에서 5단계 '기준 이상(Exceeding Expectations)'까지 총 5개 단계로 평가된다. 합격선은 4단계 '기준 충족(Meeting Expectations)' 이상이다.

◆영어 = 포트리 학군의 경우 10학년 영어 시험 합격률이 90.2%를 기록하는 등 전 학년에서 아시안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됐다. 특히 10학년 아시안 영어 시험 합격률의 경우 전년 대비 17%포인트나 올랐으며 팰리세이즈파크 등 이웃 학군은 물론, 우수 학군으로 손꼽히는 테너플라이·노던 밸리리지널 고교 학군 등보다 뛰어났다.

포트리 3학년과 7학년 영어 합격률은 각각 76.8%와 84.2%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2.9%포인트 올랐다.

리지필드 학군도 합격률 상승이 눈에 띈다. 리지필드 7학년 아

NJ 주요 학군 아시안 표준시험 합격률

학군	영어(%)			수학(%)		
	3학년	7학년	10학년	3학년	7학년	기하학
팰리세이즈파크	67.8	60	64.1	68.8	56	60
포트리	76.8	84.2	90.2	82.9	74.4	51.8
리지필드	77.5	89.3	78.3	87.1	78.6	43.2
레오니아	64.6	80.7	87.3	72.9	72.7	55.8
테너플라이	83.1	89.6	73.1	94.9	79.6	86.9
클로스터 (10학년은 노던밸리리지널)	84.7	91.5	78.6	85.2	80.9	80.2
리지우드	84.5	88.3	56	90.4	81.8	80.3

자료: 뉴저지주 교육국

시안 합격률은 89.3%로 기록돼 팰팍·포트리·레오니아 학군 등보다 높고, 테너플라이·클로스터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팰팍의 경우 영어 시험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대조된다. 3학년 아시안 영어 합격률은 67.8%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또 7학년은 합격률이 60%에 그쳐 전년보다 14.5%

포인트나 떨어졌다.

학군별 비교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명문으로 꼽히는 테너플라이·노던 밸리리지널·리지우드 학군 등의 저학년은 합격률이 타 학군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0학년 아시안 학생의 경우 테너플라이는 합격률이 73.1%로 포트리·레오니아 등

보다 낮았고, 리지우드는 합격률이 불과 56%에 그쳤다.

◆수학 = 테너플라이 등 버겐카운티 북부 지역 학군의 경우 아시안 수학 합격률이 여전히 타 학군보다 높은 편이지만 전년 대비 합격률은 다소 하락했다. 테너플라이 7학년 수학 합격률은 79.6%로 전년 대비 10.1%포인트 낮아졌고, 클로스터 7학년 합격률도 80.9%를 기록, 전년보다 13.1% 하락했다. 이들 학군은 3학년 수학 합격률도 전년 대비 낮아졌다.

그럼에도 학군별 차이는 여전히 큰 상태다. 3학년 수학의 경우 테너플라이·리지우드 등은 합격률이 90%를 넘었지만 팰팍이나 레오니아 등은 60~70%선에 그쳤다.

7학년 아시안 수학 합격률에 있어서도 테너플라이·클로스터 등은 80%를 웃돌았지만 팰팍은 56%에 불과했고 포트리, 레오니아 등도 70%선에 그쳤다. 서한서 기자



29일 열린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버겐 아시안 정보 센터' 오픈식에서 크리스 로우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부사장(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팰팍에 '버겐 아시안 정보센터' 개설

한국어 구사 직원 상주

메디케어 등 정보 제공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에 사무실을 열고 건강보험 및 복지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팰팍의 파인플라자 2층(7 브로드웨이 207호)에 오픈한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버겐 아시안 정보센터'는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메디케어 등 각종 보험 정보와 건강 교육 세미나 등을 제공한다. 보험사 측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이 항상 상주해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라면 무엇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오픈식에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아시안부서의 크리스 로우 전미 부사장은 "지난

1994년 뉴욕시 차이나타운에 아시안 정보센터가 첫 선을 보인 후 꾸준히 아시안 주민들을 위한 건강 관련 복지 정보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팰팍은 전국 10번째 아시안 정보센터로, 한인 등 버겐카운티의 아시안들이 건강과 관련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 측은 "메디케어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팰팍의 정보센터를 찾아 달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팰팍을 비롯해 뉴욕시 맨해튼·퀸즈 등 전국의 10곳에 아시안 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팰팍의 정보센터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한다. 문의 877-718-3682, www.uhcasian.com

서한서 기자

→A-1면 '불화' 에서 이어집니다

이 그림의 정확한 제작 연도는 훼손된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180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탈리 회장은 "이 그림들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서 유출돼 미국에 유입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

만, 뉴욕의 한 고미술품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분에게 이 그림들을 한국 불교계에 기증할 것을 권유했고 그가 한국 불교계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리 회장은 이어 "오늘 오전에 선려사 삼우스님과 함께 수집가를 만나 기증을 약속받고 그림들

을 일단 내가 전달받았다"며 "오는 10월 11일 선려사에서 삼우스님에게 전달식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탈리 회장에 따르면 나반존자 그림은 삼우스님이 해인사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며, 대형 탱화는 선려사에서 소장하며 뉴욕 불자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We are with you®
WooRee 우리보험
 INSURANCE.COM
 "트럭&밴보험 전문" 사업 자동차 주택 생명 건강
 NJ 201.944.9655 NY 718.994.9655

빠른 비즈니스 용자
 24시간 안에 결정 신용 담보 필요 없음
 비즈니스 운영 하시는 분 \$5,000 ~ \$100,000
718-866-8609 OM Advance
 Quick Money in Advance

NY & NJ Law office of Bai & Seibel, P.C.
제니퍼 배 변호사 유산·상속법
 • 유연장 작성.
 • Trust 사용으로 주 / 연방 상속세와 Gift 세금 삭감.
 • 재산규모에 합당한 Medicaid 보조.
 • 복잡한 법정처리 없는 유산분배.
T. 516-466-1401
 505 Northern Blvd., Suite # 207, Great Neck, NY 11021

"네이버 평점 9.36!!" "국내 박스오피스 1위!!" "재미와 감동 두마리 토끼 다 잡은 올해 최고의 영화!!!"

할 말이 있다

아이 캔 스피크

나문희 이제훈

10월 6일 북미 대개봉

NA Edgewater (New Jersey)
 339 River Road, Edgewater, NJ 07020

CJ-ENTERTAINMENT.COM FACEBOOK.COM/CJENTERTAINMENTUSA